



보도시점 2024. 5. 22.(수요일) 배포 2024. 5. 22.(수요일)

재외동포청, 미국 뉴욕 워싱턴서 국적·병역 제도 설명회 개최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은 미국 현지시간 22일 오전 뉴욕 맨해튼과 뉴저지, 24일 오후 워싱턴 D.C에서 국적·병역 설명회를 연다.
 - 미국 동부는 약 60만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(체류) 중인 지역으로, 한인 유학생들의 국적·병역 제도와 관련한 문의가 많은 지역이다.
 - 재외동포청 담당자가 현지 동포를 대상으로 재외동포들의 주된 관심 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, 예외적 국적이탈, 국적 회복, 국외 여행 허가 등 국적·병역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.
-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, 26일 독일 본에서 같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. 재외동포들이 국적 및 병역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설명회를 열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.
 -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 아주지역에서도 국적·병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국적, 병역, 가족관계, 보훈, 고용노동, 국세, 관세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운전면허 등 다양한 분야의 재외동포 민원 상담을 5개 국어(한·영·일·중·러)로 365일 제공하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(02-6747-0404)를 운영하고 있다.

- 한편,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에서는 해외체류 재외동포를 위해 전화 상담뿐 아니라 국제전화료 부담이 없는 카톡 채팅 및 데이터통화-웹콜 (<https://webcall.g4k.go.kr>)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하반기에는 웹챗 서비스까지 상담방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	책임자	사무관	장경호	032-585-3180
		담당자	주무관	고상우	032-585-3185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